

- ◆ …… 일상에서 우울증환자를 대할 때 조심
- ◆ …… 해야 할 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 ◆ …… 진단과정에서 부터 살펴보자. 첫째 우
- ◆ …… 울증 아닌 것이 우울증으로 보일 때
- ◆ …… 가 있다. 가장 흔한 경우가 히스테리
- ◆ …… 이다. 눈물을 흘리며 호느끼고 자살하
- ◆ …… 고 싶기도 하고 아무 의욕도 없고 울
- ◆ …… 적하다고 한다. 쉽게 우울증이라 친단
- ◆ …… 하게 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
- ◆ …… 울증과는 달리 말이 많고 빠르다. 자
- ◆ …… 기 사정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정신분열증도 때론 우울증으로 오진하기 쉽다. 의욕 없다, 일하기 힘들다, 사는 재미가 없다, 피로하다, 머리가 아프다. 정신집중 안된다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우울증이 아닌가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환자상태를 좀 더 깊이보아야 한다. 정신분열증에서는 진정한 죄책감이 없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괴상한 방법으로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슬픈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분노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정이 메말라 있어 얼굴표정도 없다. 좀더 깊이 살펴보면 여러 기괴한 생각들로 짜차 있음을 알게 된다. 피해 의식이라든가 아주 비현실적인 생각들로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항우울제를 쓰면 증상이 악화되어 낭패를 본다.

실은 우울증인데 전혀 다른 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소위 「가면성 우울증」이라 해서 속이는 우울증이 숨어 있으나 겉으로는 여러 신체적인 증상, 이를테면 불면증, 소화장애, 피로, 두통, 식욕부진, 흉부 압박감 같은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가 특히 흔하다. 베험이 없다. 정력이 없다. 양기가 없다는 표현도 한다. 진찰로 몸의 병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면 건강염려증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냥 「신경성」이라고 밀해 줄 때도 있다. 이럴 경우 우울증은 진단하기는 무척 힘들다. 증세가 완고하고 항불안약물을 충분히 사용해보았는데도 하등의 효과가 없으면 우울증이 아닌가 최종적으로 의심해보게 되는데 정신과의사의 면밀한 관찰과 일상심리검사를 통해 최

모든 괴로움을 주변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대해준 탓으로 돌린다. 신세타령이라 는 인상이 짙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책하는 우울증과는 다르다. 또 그들은 감정의 기폭이 심하다. 그렇듯 눈물을 흘리며 호느끼다가도 진찰이 끝날 무렵에는 샐쭉웃는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울증인줄 알고 히스테리에다 항우울증을 쓰다가 약에 취해 늘어지므로 원망을 사게됩니다.

원시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용기를 내라고 하지만 그게 안되어서 의사 찾았는데 의사마저 그런다면 나는 결국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하고 더 좌절해버리기 쉽다. 이역시 자살을 재촉할 수도 있다.

우울증환자는 깊이, 또 오래 면담할 필요는 없다. 쉽게, 자주 안심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뇌의 병이니 약을 열마동안 쓰면 회복이 된다는 식으로 안심시켜주고 모든 판

괴로워하는
지금의
病勢를
잘 설명해
주고
구체적處方을
해주는
것이
效果的
인정해
주고

우울증

에는 치료방침에 대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혼히들, 우울증환자에게 용기를 준다고 해서 신경쓰지 말라고 주문한다. 이런 주문처럼 맹랑한 것이 없

단과 행동은 좀 보류하도록 주문한다. 직장에 사표를 내는 일, 자살을 하는 일 등을 막아주는 방법인 것이다.

우울증이 내인성 우울증이면,

金光一
<漢陽醫大>
신경정신과교수

효과가 없고 시간만 끌게 된다. 가령 Imipramin이면 하루 300mg 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것도 2~3주 이상 충분용량을 사용해야 효과가 난다. 약을 쓸 때 부작용이나 불편한 증세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자세히 설명해주어서 약이 안듣는다고 복용을 중단하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우울증이라고 다 입원시킬 필요는 없다. 자살이 염려될 때, 약물복용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自殺위험이 있거나 藥物복용을 거부할 때— —최소 1개월 정도의 入院治療실시 바람직—

다. 사는 것이 다 신경쓰며사는 것인가 신경쓰지 말라니, 죽으란 말인가? 또 어디 신경 쓰고 싶어 쓰는가? 그게 어디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되는 것인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안되니까 의사 찾았는데 신경쓰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이다. 차라리 괴로워하는 심정을 인정해주고 지금의 병세를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인 처방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일하라, 용기를 내리, 마음을 크게 먹으라고 격려하는 의사도 많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역효과를 가져온다. 진정한 우울증이면 일하라고 하는 주문은 부담을 가중시켜 절망을 재촉하고, 때론 자살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차라리 직장을 쉬게 하거나 입

즉 노이로제 수준의 것이 아닐 때 신경쓰지 말라니, 흡히들 소량 쓰거나 항불안약물을 쓰는데 이런 방침은 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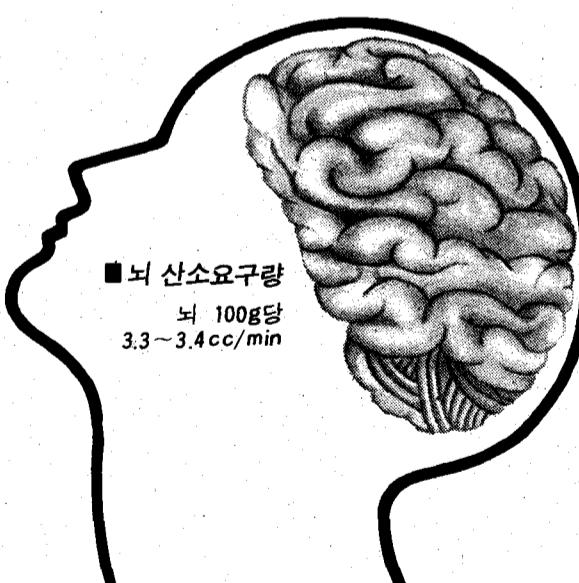
초절할 때, 그리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뜻에서 입원을 권하게 된다. 입원기간이 최소 1개월은 필요하다.



어른을 공경하여 효도를 실천하자.

뇌졸중 증후 반신불수

- 만성 두통
- 지각장애
- 현기증
- 노화증후군
- 연탄까스증독 후유증
(언어장애·수전증·기억력장애)



뇌에 맑은 산소를!

BELGIUM UCB 뇌기능 대사 촉진제

뉴트로필®

Rx Nootropil 2.4g/day p.o for 6 weeks

5大藥理作用

1. 물질대사 촉진작용

산소 및 포도당의 이용율을 증가시켜 뇌신경세포의 물질대사 촉진을 시켜 줍니다.
(Rouquerol B. et al. FRANCE)

2. 신경전달 촉진작용

유발 전위에 작용하여 반구정보를 전달합니다.
(Herrschartz H. et al. GERMANY)

3. 혈소판의 과잉 억제작용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유착을 방지하여 제증상을 개선하여 줍니다.
(Barnhart. et al. U.S.A.)

4. 적혈구 변형 유동력 증가작용

적혈구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말초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줍니다.
(Skondia V. et al. BELGIUM)

5. 저산소시 뇌기능 보호작용

말초혈행을 정상화시켜 다발성 기질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C. Giurgana and Coll. BELGIUM)



■ 포장 ■ 주사 : 1g 12앰플·정제 : 800mg 100정
캡슐 : 400mg 100캡슐/15.000원